

## 07. 인간의 자유

교회는 자유를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 모습의 탁월한 표징으로 여깁니다. 신적 행복에 대한 인간의 참여는 너무나 큰 선이며 하느님의 사랑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어서,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자유라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원하셨습니다. 도덕적 의미에서 자유는 인격의 자연적 속성이기보다는 교육과 소유한 도덕적 덕과 하느님 은총의 열매인 성취입니다.

### 1. 하느님께서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알려 줍니다. “한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셨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sup>[1]</sup> (집회 15,14-17).

교회는 자유를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 모습의 탁월한 표징”<sup>[2]</sup>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고자 하셨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 의지로 자신의 창조주를 찾아 그분을 따르며 자유로이 충만하고 복된 완전성에 이르도록 바라신 것이다”<sup>[3]</sup> (“기쁨과 희망” 17 항).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모습과 닮은 꼴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신적 생명에 참여하고 당신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셨습니다.

인간들이 “기쁨과 희망”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께 자유로이 의탁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곧 자율적으로 선을 인식하고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유한하고 실수하기 쉬운 존재인 인간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할 슬픈 가능성, 곧 선을 부정하고 악을 긍정하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다면 최고 선이신 하느님 자신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신적 행복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별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칙을 완전하게 따르지만 인식하고 사랑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느님의 행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 호세마리아가 쓰신 것처럼, “(천사들은 별도로 하고) 오직 우리 인간만이 자유의지로써 자신을 창조주와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sup>[4]</sup> (“하느님의 친구들” 24 항). 하느님의 사랑이 그토록 갈망하시는 큰 선인 신적 행복에 대한 인간의 참여를 위해,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자유라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어서 자유가 언급되는 다양한 의미들과 자유의 본질, 그리고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본 자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2. 인간 자유의 차원들

인간의 자유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강제로부터의 자유*는 외부 행위자들의 강요나 장애 없이 자신이 결정한 것을 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법과 정치 영역에서 이해되는 자유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는 법이 정한 한계 내에서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수나 전쟁 포로들은 이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 또는 *심리적 자유*는 하나 또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 내적 필연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미 *행할* 가능성이 아니라, 의지와 다른 내적 힘이 다른 가능한 대안들을 선택하는 것을 막으면서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하는 내적 결정론에 예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심리적 자유는 자기결정능력입니다.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일부 약물, 또는 극도로 흥분된 상태(예를 들어 화재 앞에서)는 심리적 자유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자유*는 나쁜 열정, 악덕 또는 죄의 노예 상태가 되지 않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의미에서 자유는 인격의 자연적 속성이기보다 교육과 소유한 도덕적 덕과 하느님의 은총의 열매인 성취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교도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할 때 이 의미에서 자주 자유에 대해 말합니다.

## 3. 자유의 본질

방금 설명한 세 가지 차원에서 자유는 어떤 것의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자유는 행동을 위한 외적 장애물의 존재, 선택을 위한 내적 조건화, 그리고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도덕적 장애물을 부정합니다. 이러한 장애물, 조건화 및 방해물의 부재는 인간이 자유롭게 위한 전제 조건이지만, 자유의 긍정적 본질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은 자유로우시며, 그분의 자유는 그분이 갖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는 외적 또는 내적 조건화의 부정일 수 없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결정적 조건화의 부재 이상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자유의 본질(자유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과 그것의 고유한 행위는 선에 대한 자율적 의탁, 즉 자유의 탁월한 행위인 선의 사랑입니다. 자유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지 않은 진정한 사랑은 없으며,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행사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자유는 오로지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선 자체로서 선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선에 대한 자율적 의탁은 여러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할 가능성보다 훨씬 더 자유의 본질을 표현합니다. 좋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대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자유로운 선택이기를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이 수반할 수 있는 희생도 그녀의 자유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이를 성 호세마리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어머니는 하나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녀의 자유는 더 위대할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이 위대하다면, 그녀의 자유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아 포기를 전제로 한 그녀의 복된 자유 덕분에, 또한 그녀가 자유로이 선택한 자아 포기 덕분에, 그녀의 자녀는 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sup>51</sup> (“하느님의 친구들” 30 항).

사랑하는 것에 대한 희생과 헌신은 자유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희생과 헌신이고, 사랑은 자유롭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겐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의 수난을 맞이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자유로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sup>61</sup> (요한 10,17-18). 또한 우리 안에 원죄로 인한 악에 대한 기울어짐은 선에 대한 자유로운 의탁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가 말씀하셨듯이, **“자유와 봉헌의 대립은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sup>71</sup>. 희생을 수반하는 선에 대한 자율적 의탁이 없다면, 희생을 수반하는 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때 자유와 그 선이 수반하는 헌신 사이에 대립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각 사람의 마음에 불로 새겨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유와 봉헌생활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서로를 유지해 줍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만 자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자유를 포기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봉헌생활을 할 때마다, 자유는 그들의 사랑을 거둬나게 합니다. 그렇게 거둬나다는 것은 언제나 젊고, 관대하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위대한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sup>81</sup> (“하느님의 친구들” 31 항).

#### 4.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본 자유

성경은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는 죄의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되었지만, 완전히 부패하지는 않았습니다<sup>[9]</sup> (교리서 1739-1740 항). 성 바오로는 특히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가 인간의 지성과 의지보다 더 강하며, 심지어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지만 항상 행할 힘을 주지는 않는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강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 개인의 죄는 자유로운 행위이며, 그렇지 않으면 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힘은 사실상,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은총 없이는 인간들이 항상 죄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성은 흐려지고 의지는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경륜이 예고하고 준비한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노예로 만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sup>[10]</sup> (교리서 1742 항).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간들은 죄를 피할 수 있는데, 이는 시성된 성인들의 삶뿐 아니라 은총 안에서 살며 중죄와 심지어 거의 항상 의도적인 소죄까지도 피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협력하여 인간은 도덕적 의미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sup>[11]</sup> (갈라 5,1).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인간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필요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들이 세상에서 미치는 결과들을 진지하게 여기시게 합니다<sup>[12]</sup>.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 방식은<sup>[13]</sup> 인간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 부여와 존중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이며, 그것의 행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가치와 책임을 수반합니다.

## 5. 자유와 도덕적 선

앞서 말한 것처럼, 자유는 도덕적 선을 향하여 지향되고 있어서 그것의 소유는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선을 인식하고 그것에 의탁하도록 돕기 위해, 인간은 도덕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덕률이란 항상 선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현실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인간 법률들도 도덕률과 조화를 이룰 때 선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들은 법이 이미 자신의 자유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며, 마치 자유가 법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고 반대도 그런 것처럼 여깁니다.

실상은, 자유로운 행동은 각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에 따라 규제된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을 자유로이 행하고 나쁘다는 것을 자유로이 피합니다. 도덕률은 선을 선택하고 악을 피하도록 돕는 빛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도덕률에 반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입니다. 법은 분명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수심, 폭력, 절도 등 죄스러운 행위를 하려는 욕망을 교정할 필요성을 나타내지만, 이 도덕적 지침은 항상 사람들에 의한 선의 자유로운 긍정을 지향하는 자유에 반하지 않으며, 언제나 죄 지을 슬픈 가능성을 보존하는 자유를 강제하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선호하는 대로 행동하였다고 하겠지만, 참된 자유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결정의 노예가 되었고, 하느님을 무시한 채 최악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유도 없습니다”**<sup>[14]</sup> (“하느님의 친구들” 37 항).

별개의 문제는 인간 법률과 규정이, 그것이 표현되는 용어의 일반성과 간결성으로 인해, 특정한 경우에 특정 사람이 해야 할 것의 충실한 지침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형성된 사람은 그러한 구체적인 경우에 자신이 확실히 선하다고 아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sup>[15]</sup>. 그러나 내재적으로 나쁜 행동, 즉 자연 도덕법이나 신적 실정법의 부정적 계율이 금지하는 행동(간음, 의도적 살인 등)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경우는 없습니다<sup>[16]</sup>.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인식과 의지가 모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 도덕적 양심이 실수를 범하여 실제로는 나쁜 것을 선하다고 여기거나, 나쁘지 않은 것을 나쁘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올바른 사용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양심의 가능한 오류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심을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형성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더욱이 악덕, 무지 또는 피상성으로 인해 왜곡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판단의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6. 자유의 존중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에서 자유는 하느님의 큰 선물이며, 이는 막중한 개인적 책임을 수반하고, 인간 — 시민 및 교회의 권위 — 들은 시민 사회와 교회 공동체의 공동선이 요구하는 정의와 명확한 요청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 호세마리아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유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실상 드러나고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람들의 정당한 독립에 반하여, 의견이 가능한 것에서 모두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도록 강요하고, 일시적인 교리적 교의를 만들고자 하며, 굴종하지 않는 고귀함을 지닌 자들에 반하는 수치스러운 성격과 내용의 시도와 선전으로 그 그릇된 기준을 옹호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남용을 피하십시오 [...]. 우리는 자유를 수호해야 합니다. 지체들의 자유, 그러나 머리가신 그리스도와 세상에서 그분의 대리자와 함께 하나의 신비로운 몸을 이루면서”<sup>[17]</sup>.

인간 통치의 영역을 벗어난 대인 관계도 자유의 존중과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방식이 그리스도교 사도직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사랑합니다. 성 호세마리아가 우리에게 증언과 말로써 실현하도록 초대하는 우정과 신뢰의 사도직에서 말입니다 [...]. 진정한 우정은 진실한 상호 애정을 내포하며, 이는 서로의 자유와 내밀성의 참된 보호입니다”<sup>[18]</sup> (오카리스 신부, 2018년 1월 9일 서한, 14 항).

타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의 올바른 행사는 각자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타인들에게 진정으로 선한 것을 제안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다른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사람에게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진리를 제안하는 것은 항상 선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신체적이나 심리적 폭력으로 진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오직 합법적인 권위만이 정의로운 법이 규정하는 경우와 방식으로 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참고 문헌:

- “가톨릭교회 교리서”, 1730-1748 항.
-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선물인 자유” 강론, “하느님의 친구들”, 23-38 항.